

전남 지자체 수십억대 하수도부담금 어찌나

담양군 1억7000여만원 예산 편성 4개 농협에 반환 추진
전국 지자체 환불소송 잇단 패소... 열악한 재정 타격 우려

담양을 비롯, 전남 자치단체가 수십억 원 규모의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뜰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엔 영향을 미쳐 다양한 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포항축협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상·하수도 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원고 승소 판결한 점을 반영, 지역 4개 농협에 부과했던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1억 7090만 6000원을 내던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다.

하수도원이자부담금은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하는 오수 발생량에 비례해 오수발생 원이자(사업체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지난 7

월 포항축협이 포항시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포항축협의 손을 들어줬다.

포항축협은 지난 2015년 포항시 복구장성동에 개점한 한우식당인 '포항축산농협 축산물 플라자 장량점'과 관련, 포항시가 상·하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에게 사용료 개념으로 부과하는 상·하수도 원이자부담금 7800여만원을 부과한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포항축협은 지난 2016년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명시된 '국세와 지방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담금이 부당하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상·하수도원이자부담금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돼 부과처분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부과금의 면제에 위반되는 사안으로, 부담금 징수는 무효'라고

■담양 하수도 원이자 부담금 환급규모

농협명	원이자 부담금 납부일	환급예정액		
		계	원금	이자
담양	72,308 '13.06.28	80,265	72,308	7,957
봉산	22,269 '17.1.17	22,646	22,269	377
고서	42,880 '12.12.17	48,421	42,880	5,541
창평	18,192 '14.7.7	19,576	18,192	1,384

판시했다. 담양군은 이같은 점을 감안, 6개 지역 농협 중 담양·봉산·고서·창평 농협에 부과했던 원이자 부담금 1억7096만6000원(원금 1억5564만9000원·이자 1525만7000원)을 돌려주기기로 결정했다. 담양군이 추정한 환급 금액은 담양농협의 경우 8026만원, 봉산농협 2264만원, 고서농협 4842만원, 창평농협 1957만원 등이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농·축협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잘못된 부과처분을 선제적으로 파악, 반환해 잇따른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도 반영됐다는 게 담양군 입장이다.

당장, 농협 전남지역본부도 관련 판결을 토대로 광주 14개, 전남 147개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여부 및 환급 금액 등을 파악해 대처하기로 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대상 농협, 환급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전남 자치단체 상당수가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급 금액 규모도 지역 농협 규모를 고려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잘못 부과한 원이자 부담금 환급 요청을 전국 지역본부에 통보한 상태다.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열악한 지방 재정 형편을 감안하면 자칫 예산 부족으로 절실한 지역 개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장성군은 최근 11개 읍·면 복지담당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복지사업개발과 복지사업정책의 효과적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 본격 추진

장성군이 11개 읍·면사무소를 '복지허브'로 만들어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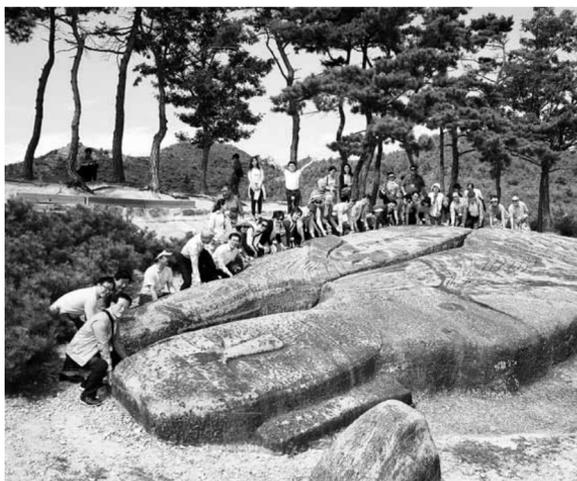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읍을 비롯, 11개 읍면사무소에 '맞춤형복지계'를 설치하고 지역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읍면 복지허브화 사업'은 읍·면사무소를 지역 복지 중심 기관으로 강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장성군은 거점지역인 장성읍과 함께 면, 황룡면, 북이면의 경우 맞춤형복지계를 신설, 주민복지계와 함께 복지 업무를 추진토록 했다. 나머지 진원·남·동화·삼서·서삼·북일·북하면은 기존 주민복지계 인력을 충원해 맞춤형 복지계로 확대했다. 읍·면사무소 명칭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절차도 진행중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복지를 담당하는 인력과 기구를 강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 제공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 운주사 추석 연휴 답사 여행지 '대박'

하루에 2000여명 찾아
방문객 2배 이상 늘어
유홍준 추천 방송 후 인기



운주사를 찾아 와불과 탑 등을 둘러보고 있는 여행객들. <화순군 제공>

'전불전탑'의 신비를 간직한 화순 운주사가 답사 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7일 하룻동안 운주사를 찾은 탐방객이 2000여명에 달했다. 휴일인 지난 8일에도 1500여명이 넘어서는 등 예년 추석에 비해 방문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운주사를 찾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잇따른 데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역할이 컸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저자인 유 전 청장이 최근 한 방송에서 '추석 답사 여행지 TOP 5' 중 한 곳으로 운주사를 꼽았다. 그는 "운주사는 우리나라 수많은 사찰 중에서 가장 독특한 사찰"로 "천불천탑동이라고 해서 탑이 1000개, 불상 1000개가 한 곳에 설치미술처럼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유

전 청장의 방송을 듣고 표를 사려는 관람객들이 줄지어 늘어선 등 운주사를 찾았다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운주사는 '화순 8경' 중 제 2경으로

꼽히는 명소로, 화순군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2017 화순 국화향연' 행사 기간 중 운주사를 비롯한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화순에 탄광근로자 복지관

18억원 들여 내년 4월 완공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탄광이 위치한 화순에 광산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조감도)이 건립된다.

화순군은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01번지 일대 부지(3994㎡)에 지하지원 개발에 헌신한 화순탄광 종사자들을 위한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신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회관은 18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55.09㎡) 규모로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화순군은 탄광 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등을 갖춘 계획이다.

화순군은 이를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달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화순군 관계자는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탄광근로자들에게 복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나성종기자 nsj@

담양군 농산어촌개발 사업비 135억 확보

담양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8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35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봉산·대덕면 2개소를 대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120억원)가 추진하는 한편, 담양읍 고가외마을, 금성면 가라실마을, 수북

면 개동마을 등 3개소의 경우 15억원을 들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센터가 5개소에 조성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우물복원, 꽃길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화순 애플토마토 틈새 소득작목 인기

토마토의 식감과 방울토마토의 당도를 지닌 '애플토마토'가 각광을 받고 있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애플토마토가 틈새 소득작목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화순군 도곡면에서만 1.27ha가 재배되고 있다. 재배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애플토마토는 품종이 방울토마토지만 모양이 사과 모양인 게 특징으로, 일반 토마토의 부드러운 식감과 방울토마토의 당도를 지녔고 빨강·노랑·주황색 등 3가지 고운 색깔이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토마토 재배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VCV)에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애플토마토는 기존 품종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선호도도 높다는 게 화순군 설명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상무지구 상가 매매

시청 1분. 금융가대rob인

현대아파트 후문 앞

8층 중 4층 (45평)

내부깨끗 / 주차 가능

보 2천 월 100만

→ 매가 1억9천 (용7천)

직매 010-6670-9800

수기동 상가 매매

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

45평 (고급시설) 리모델링 완비/ 주차완비

보 1천 월 60만

매가 9천8백 (용5천)

직매 010-6670-9800

경매 (주)대신경매

- 서구 농성동 (상가건물) 토지 42평 건물 51평 농성역/돌고개역 3분 (코너) 자동차정비소 운영중 감정가 2억 6천 → 최저가 2억 6천
-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 남구 봉선동 (2층 상가건물) 토지 690평 건물 430평 감정가 46억 → 최저가 46억
-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 동구 충정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 광산구 오선동 (공정) 토지 2,546평 건물 1,388평 감정가 90억 → 최저가 50억

경매교육

-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인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7384-7800 010-6670-9800